

한국형 직업균형 평가(Occupational Balance Assessment)의 동시타당도 연구

홍소영*, 홍덕기**

*고신대학교 작업치료학과 교수

**원광대학교 작업치료학과, 건강증진연구소 교수

— 국문초록 —

목적 : 본 연구는 한국형 직업균형 평가(Occupational Balance Assessment: OBA)의 동시타당도를 검증하고자 실시하였다.

연구방법 : 본 연구는 2019년 10월 1일부터 10월 25일까지 10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자료 수집은 OBA와 직업균형 설문지(Occupational Balance Questionnaire11: OBQ11)를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은 기술통계와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 OBA의 세 가지 영역별 점수와 OBQ11의 총점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p < .01$). 세 가지 영역 모두 양의 상관관계로 분석되었다. 시간사용 영역($r = .554$)과 작업빈도 영역($r = .574$)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작업특성 영역의 하위요인(중요도 $r = .582$, 목표성취 $r = .633$, 즐거움 $r = .649$, 건강 $r = .650$)은 대부분 높은 상관관계로 분석되었다.

결론 : OBA는 직업균형을 평가하기 위해 타당한 평가도구임을 검증하였다. 향후에는 임상적 유용성을 위해 직업균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주제어 : 동시 타당도, 직업균형평가, 직업균형

I. 서론

직업균형은 작업치료와 작업과학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직업균형과 건강, 웰빙 간의 연관성이 제시되고 있다(Wagman, Håkansson, & Björklund, 2012). 의미 있는 작업참여는 건강과 웰빙으로 연결되고(Krupa, McLean, Eastabrook, Bonham, & Baksh, 2003), 건강과 웰빙의 증진은 작업치료의 중요한 성과지표로 강조된다(Eklund, & Leufstadius, 2007). 그러나 단순한 작업수행보다는 작

업참여에 있어 균형감을 이루는 것이 웰빙으로 귀결되는데 효과적이다(Wilcock, 2006). Bejerholm(2010)는 조현병 환자를 대상으로 직업균형이 좋은 집단이 작업불균형 집단보다 웰빙, 스트레스 관리 및 건강유지 수준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Backman(2004)은 류머티스 관절염이 있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직업균형의 등급이 전반적인 건강, 신체 기능, 그리고 사회적 기능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피로와 통증과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고하였다. 이처럼 직업균형은 개인에게 다각적인 측면으로 영향을 미

교신저자: 홍덕기(hongmarin@hanmail.net)

접수일: 2020년 3월 31일 심사일: 2020년 4월 1일 게재승인일: 2020년 5월 7일

치는 요인으로 작업치료 분야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면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작업균형을 정의하기 위해 작업에 대한 포괄적인 개념을 연구하고 있지만 연구자들마다 다소 차이를 보인다. Backman(2004)은 가치 있고, 의무감이 있는, 그리고 자율적인 활동들에 만족스러운 참여를 하고 있다고 지각한 상태라고 하였고, Christiansen(1996)은 한 작업이 다른 작업에 주는 영향이 조화로우며 화합이 있고 통제가 잘 되었을 때로 정의하였다. Wilcock(2006)은 작업균형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 휴식과 관련된 작업들에 중간 이상의 참여가 있을 때 적절한 균형을 이룬 것으로 보았다. Wagman 등(2012)은 적절한 작업의 규모와 변화에 대한 인식으로 정의하였다. 이렇듯 작업균형이란 개인이 만족을 느끼는 일상적인 작업의 양식으로, 아직까지 명료하게 합의된 정의가 없는 것은 작업의 적절한 양과 다양성은 개인의 지각에 따라 주관적으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작업균형은 여러 작업을 같은 비율로 균형을 맞추는데 초점을 두지 않으며 필요에 따라 만족도(Matuska & Christiansen, 2008; Matuska, 2012), 의미 수준(Eakman, 2015), 작업 종류(Dür et al. 2014)와 같은 측면에 중점을 두어 다양한 방식으로 개념화되고 측정된다. 많은 연구자들은 작업균형 측정하기 위해 시간사용과 매일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연구하였으나 작업균형을 명쾌하게 정의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작업균형의 측정도구는 개념과 정의에 따라 차이가 있다. Eklund 등(2017)은 작업균형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조화로운 배합, 능력과 자원, 가치와 개인적 의미의 조화를 제시하였다. 조화로운 배합은 얼마나 다양한 작업들이 서로 조화롭게 함께 작용하는지를 측정하며, 능력과 자원은 개인이 지닌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능력,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자원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작업을 구성하는데 자신의 개인적, 상황적 자원 내에서 이뤄진다. 가치와 개인적 의미의 조화는 작업균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족감과 의미를 생성하는 경향이 있는 가치와의 조화를 의미한다. Matuska(2012)는 삶 균형 모델을 기반으로 LBI (Life Balance Inventory)를 개발하였고, 건강, 정체성, 관계, 도전과 흥미로 이뤄진 4개의 하위 영역 만족도 간의 균등한 정도와 사전에 정의된 53개 활동에 사용한 시간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여 대상자의 삶의 균형 상태를 평가한다. Dür 등(2014)은 자가 면역 질환

을 가진 사람들과 건강한 사람들 사이에서 Occupational Balance-Questionnaire(OB-Quest)를 개발했다. 작업균형의 요소로 작업의 유형, 능력과 자원, 자신과 다른 사람의 요구도의 차이로 보았다. 이러한 구성요소를 기반으로 일상생활활동의 중요도, 스트레스, 건강과 일상생활활동 간의 관계, 휴식과 수면 양 등 10문항으로 평가한다. Occupational Balance Questionnaire(OBQ)는 작업패턴에 따라 적절한 작업의 비율과 양을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된 작업균형 평가도구로 처음 소개된 이후 스웨덴 성인의 작업균형과 건강, 삶의 만족도간의 상관성을 제시하였고(Wagman, & Håkansson, 2014), 보건의료인의 작업균형을 조사하였다(Wagman et al, 2017). 이후 라쉬분석을 통해 구성타당도를 검증하여 Occupational Balance Questionnaire11(OBQ11) 개정판을 발표하였다(Håkansson, Wagman, & Hagell, 2019). OBQ11은 11 문항으로 4개의 범주로 구성된 새 버전의 작업균형 설문지는 개인과 집단의 작업균형을 측정한다. OBQ11은 최신의 작업균형평가도구 중에서 구성타당도, 수렴타당도, 신뢰도를 제시하고 있고, 노르웨이(Uhrmann et al, 2019)와 터키어(Günel et al, 2019)로 번역되어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하여 많은 문화권에서 사용되고 있다.

작업균형은 개인이 속한 사회적, 문화적, 물리적 등의 배경에 영향을 받으며 작업을 수행하는 고유한 생활양식을 평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문화적 변수를 고려한 평가문항의 구성이 필수적이고 다른 사회적 문화적 기준을 사용하여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Hickey, 1980). 이에 한국형 작업균형 평가도구(Occupational Balance Assessment: OBA)는 국내 실정에 맞는 작업균형을 측정하여 임상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작업치료 분야에서 작업균형 개념을 측정할 수 있는 타당도 및 신뢰도가 높은 평가도구는 중요한 임상적 가치를 가진다. 그러나 작업균형의 개념이 연구자에 따라 차이가 있고 응답자의 주관적 인식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표준화 값을 제시하기에 앞서 여러 연구과정을 실시하고 있다. OBA 초기 개발 과정은 문헌고찰, 전문가 포커스 회의, 델파이조사를 통해 예비문항을 선정하였다. 이후 구성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라쉬분석을 적용하여 대상자 및 문항적합도, 문항난이도, 평정척도 및 분리신뢰도를 분석하였다(Hong & Hong, 2019). 이후 지속적인 전문가회의를 통해 영역과 작업에 대한 논의를 거쳐 자가 보고방식으로 시간사용(7 문항), 작업빈도(7 문항), 작업특성(4 문항)의 3개 영역으로 구성

되어 7개의 작업(자기관리, 다른 사람을 위한 활동, 휴식과 수면, 교육, 일, 놀이/여가, 사회활동)에 대해 4점 척도로 평가가 이뤄진다. OBA는 국내의 사회 및 문화 등을 반영한 작업균형 평가도구로서 구성타당도를 검증하였으나 여전히 평가도구 개발 초기 과정으로 조사대상자의 모집단 수가 작고, 전국에 고르게 분포되지 못하였다는 제한점이 있다(Hong & Hong, 2019). 또한 임상에서 OBA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타당도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새로운 평가를 개발하였을 때 기존에 검증된 평가도구와의 상관성을 비교하는 동시타당도는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다(Portney, 2020).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문화, 사회, 환경, 언어의 특성을 반영한 OBA의 동시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Håkansson 등(2019)의 Occupational Balance Questionnaire11(OBQ11)과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임상적 유용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자 및 과정

본 연구는 2019년 10월 1일부터 10월 25일까지 20세 이상 정상성인 1016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자료수집은 약 500만명의 패널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리서치 기관인 두잇서베이(<http://www.dooit.co.kr/>)에 의뢰하여 실시하였다. 조사 참여대상은 인구 수 대비 전국 지역의 고른 분포,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의 연령별 비율과 성별의 비율이 일정하도록 하였다. 작업빈도 영역에서 수행빈도를 측정하여 자주 또는 매우 자주에 응답한 경우에만 작업특성을 조사하기 때문에 최적의 응답방식을 위한 테스트를 2회 실시한 후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대상자에게 연구목적 및 과정에 대해 서면으로 설명하고 연구동의를 한 경우 조사를 실시하였다.

2. 연구 도구

1) 한국형 작업균형 평가(Occupational Balance Assessment OBA)

OBA는 작업균형을 측정하기 위한 자가 보고식 평가도구로 국내 배경을 반영하여 개발되었다(Hong & Hong, 2019). OBA는 자기관리, 다른 사람 돌보기, 휴식과 수면,

교육, 일, 놀이/여가, 사회활동의 7개 작업에 대해 평가가 이뤄진다. 평가는 지난 한 달을 기준으로 시간사용, 작업빈도, 작업특성 영역에 대해 1-4점 척도로 문항에 응답한다. 시간사용 영역은 자신이 원하는 시간과 실제사용시간 간의 차이를 7개 작업에 따라 측정한다. 작업빈도 영역에서는 7개 작업의 수행 빈도를 측정하고, 자주(3점) 또는 매우 자주(4점)에 응답한 작업에 대해 작업특성(중요도, 목표성취, 즐거움, 건강에 대한 긍정적 영향) 영역을 조사한다. OBA는 라쉬분석을 적용하여 대상자 및 문항적합도, 문항난이도, 평정척도, 분리신뢰도를 분석하여 구성타당도를 검증하였다(Hong & Hong, 2019). 본 연구에서 OBA의 내적일치도는 Cronbach's $\alpha=.884$ 이었다.

2) 작업균형 설문지(Occupational Balance Questionnaire11: OBQ11)

동시타당도 검증을 위해 공인된 작업균형 평가도구인 OBQ11를 사용하였다. OBQ11은 작업의 양과 변화에 대한 만족도에 중점을 둔 평가도구이다(Håkansson et al., 2019). 평가 구성은 11 문항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작업균형 수준이 좋음을 의미한다. OBQ11은 스웨덴에서 2014년에 개발된 OBQ를 2019년에 라쉬분석을 적용하여 기존 13 문항에서 11 문항으로, 6점 척도에서 4점 척도로 개정되어 구성타당도를 검증하였다(Håkansson et al., 2019). 본 연구에서 OBQ11의 내적일치도는 Cronbach's $\alpha=.892$ 이었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작업균형에 대한 점수분포는 기술통계를 사용하였다. OBA의 동시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OBQ11과 피어슨 상관분석(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을 사용하였다. 통계적 유의 수준 α 는 .05로 설정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1016)

Characteristics		n	%	Characteristics		n	%
Gender	Male	465	45.8	Education level	High school	224	
	Female	551	54.2		College	151	
Age (yr)	20~29	252	24.8		University	513	
	30~39	253	24.9		Graduate school	120	
	40~49	256	25.2		etc.	8	
	50~59	198	19.5	Employment type	Full-time	603	
	60~69	45	4.4		Part-time	118	
	70~79	12	1.2		Temporary retirement	40	
Residence	Seoul	301	29.6		Seeking jobs	65	
	Gyeonggi	295	29.0		Retirement age	9	
	Gangwon	30	3.0	Student	70		
	Chungcheong	80	7.9	Housework	86		
	Gyeongsang	230	22.6	etc.	25		
	Jeolla	72	7.1	Annual income	< 12 million won	199	
	Jeju	8	.8		12~30 million won	239	
Marital presence	Unmarried	455	44.8		30~46 million won	221	
	Married	522	51.4		46~88 million won	272	
	Divorced	22	2.2		88~150 million won	67	
	Separated	2	.2	> 150million won	18		
	Celibacy	11	1.1				
	etc.	4	.4				

Table 2. Areas of Score for OBA

(N=1016)

Areas	Time use	Occupation frequency	Occupation characteristic			
			Importance	Goal achievement	Enjoyment	Health effects (positive)
Self care	2.28 ± .70	2.81 ± .58	2.34 ± 1.45	2.17 ± 1.38	2.23 ± 1.40	2.34 ± 1.46
Care of others	2.28 ± .84	2.57 ± .75	1.60 ± 1.51	1.46 ± 1.42	1.49 ± 1.44	1.49 ± 1.45
Rest / Sleep	2.26 ± .77	2.61 ± .61	1.85 ± 1.65	1.65 ± 1.50	1.79 ± 1.61	1.80 ± 1.62
Education	2.01 ± .82	2.13 ± .77	.96 ± 1.48	.99 ± 1.52	.88 ± 1.39	.88 ± 1.38
Work	2.36 ± .88	2.66 ± .82	2.03 ± 1.70	1.83 ± 1.58	1.69 ± 1.49	1.61 ± 1.44
Leisure / Play	2.10 ± .78	2.45 ± .63	1.50 ± 1.67	1.36 ± 1.55	1.52 ± 1.69	1.44 ± 1.63
Social participation	2.11 ± .77	2.42 ± .67	1.44 ± 1.61	1.32 ± 1.50	1.48 ± 1.65	1.40 ± 1.58
Total score	15.40 ± 3.17	17.64 ± 2.49	11.72 ± 6.09	10.78 ± 6.03	11.06 ± 6.14	10.95 ± 6.21

OBA : Occupational Balance Assessment

같다. 성별 분포는 총 1016명 중 남성 465명(45.8%), 여성 551명(54.2%)으로 여성의 빈도가 더 많았다. 연령은 40대가 256명(25.2%)으로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거주 지역은 서울특별시가 301명(29.6%), 경기 295명(29.0%)으로 수도권지역이 높은 비율을 보였다. 결혼 유·무는 기혼이 522명(51.4%)으로 많았고, 교육수준은 대학교 졸업이 513명(50.5%)으로 절반 수준을 차지하였다. 고용형태는 전일제 603명(59.4%), 시간제 118명(11.6%), 가사 86명

(8.5%) 순으로 나타났다. 연 수입은 4,600~8,800만원 272명(26.8%), 1,200~3,000만원 239(23.5%), 3,000~4,600만원 221(21.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2. OBA 영역별 점수

대상자들의 세 가지 영역별 점수는 Table 2와 같다. 시간사용 영역의 평균점수는 15.40, 작업빈도 영역은 17.64,

Table 3. Correlation between OBA and OBQ11

(N=1016)

	Time use	Occupation frequency	Occupation characteristics			
			Importance	Goal achievement	Enjoyment	Health effects (positive)
OBQ11	.554*	.574*	.582*	.633*	.649*	.650*

* $p < .01$

OBA : Occupational Balance Assessment

OBQ11 : Occupational Balance Questionnaire 11

그리고 작업특성 영역의 하위요인에서는 중요도 11.72, 목표성취 10.78, 즐거움 11.06, 건강 10.95로 나타났다.

3. OBA와 OBQ11간의 상관관계

동시타당도를 분석을 위해 OBA의 세 가지 영역별 점수와 OBQ11의 상관관계 분석은 Table 3과 같다. OBA의 세 가지 영역과 OBQ11의 총점과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p < .01$). 시간사용 영역의 상관계수는 $r = .554$, 작업 영역은 $r = .574$ 로 나타났다. 작업특성 영역의 하위요인에 대한 상관계수는 중요도 $r = .582$, 목표성취 $r = .633$, 즐거움 $r = .649$, 건강 $r = .650$ 으로 분석되었다.

IV. 고 찰

작업균형은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과 배경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며, 건강 및 웰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Wagman et al., 2012). 작업치료 분야에서 클라이언트의 건강과 웰빙을 유지·증진하기 위해서는 작업 간의 균형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중요하다(Matuska & Christiansen, 2008). 국외에서는 다각적인 측면에서 작업균형을 측정하기 위해 평가도구들이 개발되었다(Dür et al., 2014; Håkansson et al., 2019; Matuska, 2012). 작업은 개인이 경험하는 일상에서의 의미 있는 활동으로 인종, 문화, 경제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Christiansen, 1996). 이에 국외 실정에 맞게 개발된 평가도구들은 국내에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최근 작업치료 분야에서 국내 실정을 반영하여 작업균형을 측정하기 위한 한국형 작업균형 평가(OBA)가 개발되었다(Hong & Hong, 2019). 그러나 개발과정에서 안면타당도, 구성타당도와 문항에 대한 신뢰도를 검증하였으나 동시타당도에 대한 검증은 이뤄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OBA의 동시타당도를 확인하여 평가

도구의 유용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동시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Håkansson 등 (2019)이 개정한 OBQ11를 사용하였다. OBQ11은 점수가 높을수록 작업균형이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OBA도 각 세 가지 영역의 점수가 높을수록 작업균형이 좋음을 의미한다(Hong & Hong, 2019). 일반적으로 동시타당도는 상관분석을 통해 검증하는데, 상관계수에 대한 해석은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언어적으로 표현한다. 본 연구에서는 Seong(2011)의 저서를 기준으로 해석하였다. 상관계수의 언어적 해석으로 .20미만은 “상관이 매우 낮다.”, .20~.40은 “상관이 낮다.”, .40~.60은 “상관이 있다.”, .60~.80은 “상관이 높다” 그리고 .80 이상은 “상관이 매우 높다.”로 표현한다. 상관분석을 통해 OBA의 세 가지 영역 모두와 OBQ11 총점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p < .01$). 세부적으로 시간사용 영역($r = .554$)과 작업빈도 영역($r = .574$)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업특성 영역의 하위요인을 살펴보면 중요도는($r = .582$)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목표성취($r = .633$), 즐거움($r = .649$), 건강($r = .650$)은 높은 상관계수로 분석되어 동시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작업균형 평가도구 개발과정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평가도구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동시타당도를 실시한 연구들 보다는 작업균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수렴타당도(삶의 질, 만족감, 건강, 웰빙, 참여 등)와 구성타당도 분석 연구들이 다수들이었다(Håkansson et al., 2019; Lariviere & Levasseur, 2016; Matuska, 2012; Park & Park, 2019). 이는 작업균형 평가도구 개발 연구가 비교적 최근에 진행되어 기존에 공인된 평가도구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동시타당도에 대한 연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의 동시타당도 결과를 선행연구들과 비교하는데 제한이 있었지만, 본 연구가 처음으로 다른 작업균형 평가도구와 동시타당도 연구를 진행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분석된 OBA의 영역별 상관

계수는 통계학적으로 수립 가능한 수준이지만 전반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은 아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OBA와 OBQ11이 문항 구성 및 영역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OBA는 작업균형을 7가지 작업에 대해 시간사용량, 작업참여의 빈도, 작업특성(중요도, 목표성취, 즐거움, 건강) 영역으로 측정하도록 구성되었다. 그러나 OBQ11은 구체적인 작업을 제시하기 보다는 포괄적인 단어(예, 주중에 할 일, 여러 가지 활동, 내가 해야 하는 것들,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등)를 사용하여 시간의 양과 만족, 주관적인 균형감에 대한 측면을 담고 있다. 따라서 연구 대상자들이 OBA와 OBQ11를 자가 보고식으로 수행하면서 작업균형 문항을 이해하고 접근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작업균형을 측정하기 위한 평가도구들의 타당도 연구들을 살펴보면, Matuska(2012)는 삶 균형 모델에 근거하여 구조방정식 모델링으로 삶 균형, 스트레스, 개인적 웰빙과 만족감 간에 구조를 확인하여 LBI의 구성타당도를 검증하였다. 그리고 Lariviere과 Levasseur(2016)은 LBI를 프랑스 문화에 맞게 번안과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수립타당도 결과에서 삶의 균형이 좋을수록 낮은 스트레스($r=-.36$), 높은 신체적 건강($r=.42$)과 정신 건강($r=.36$) 그리고 삶의 질($r=.54$)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검증하였다. 국내 작업치료 분야에서도 LBI를 수립타당도를 통해 건강관련 삶의 질($r=.35$), 정신적 건강지수($r=.49$)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Park & Park, 2019). 이와 같이 작업균형은 다양한 요인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작업균형은 시간사용, 작업빈도, 작업특성(중요도, 목표성취, 즐거움, 건강)들과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Dür 등(2014)은 라쉬분석(Rasch analysis)을 적용하여 OB-Quest의 7 문항과 10 문항에 대한 구성타당도와 내적일치도를 검증하였다. Håkansson 등(2019)도 라쉬분석을 적용하여 OBQ의 13 문항 중 부적합한 2 문항을 제거하고, 6점 척도에서 4점 척도로 개정하였다. 이처럼 최근에는 심리적 특성에 대한 평가도구의 구성타당도 검증을 위해 문항반응이론(Item response theory)에 근거한 라쉬분석 적용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Khine(2020)은 라쉬분석 기술을 사용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응답자가 완료한 설문 조사 또는 검사형식에 관계없이 동일한 척도로 대상자의 측정값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OBA도 개발과정에서 라쉬분석을 적용하여 문항 적합도 및 난이도 분석과 평정척도, 분리신뢰

도를 분석을 실시하여 구성타당도와 내적일치도를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임상에서 작업균형을 측정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작업균형은 단순히 정의되지 않으며 다양한 요인들에 영향을 받는다. 이에 많은 연구자들은 작업균형을 측정하기 위해 여러 관점에서 작업균형을 측정하고자 평가도구를 개발하였다(Dür et al., 2014; Håkansson et al., 2019; Matuska, 2012). LBI는 53개 활동에 대한 시간사용의 만족도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Matuska, 2012), OB-Quest는 활동에 대한 도전, 사회문적 배경, 스트레스, 건강상태, 만족, 개입, 적응 그리고 돌봄과 같은 8가지 작업균형 요소로 보고 있다(Dür et al., 2014). 그리고 OBQ11은 작업의 양과 변화에 대한 만족에 주목하고 있다(Wagman & Håkansson, 2014). 이처럼 작업균형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국외 평가도구들은 다각적인 요인을 반영하여 개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Wagman 등(2012)은 작업균형에 시간사용, 작업참여 및 특성이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하였다. 이에 OBA는 7가지 작업에 대해 시간사용, 작업빈도 그리고 작업특성을 반영한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특히 작업특성 영역의 문항은 7가지 작업에 대해 각각 중요도, 목표성취, 즐거움, 건강에 관련된 하위요인들로 평가가 이뤄진다. 4가지 하위요인은 작업을 수행하는데 개인의 특성이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여 문항이 개발되었다(Hong & Hong, 2019). 국제 기능·장애·건강 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ICF)에서도 개인의 요인은 각자 고유의 특성이 다차원적으로 작용된다고 하였다(WHO, 2001). 이처럼 OBA의 작업특성 영역은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서 중요도, 목표성취, 즐거움, 건강과 같은 다양한 요인들을 반영하고 있어 작업균형을 다각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국내 작업치료 분야에서 개발한 작업균형 평가도구로 우리나라 사회·문화 배경 및 특성을 고려하였기에 기존의 국외 작업균형 평가도구보다 임상에서 유용하게 적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내 작업치료 분야에서 작업균형을 개념화하고 측정하고자 개발한 OBA의 후속연구로 20세 이상의 큰 모집단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정상인에 대한 작업균형의 기초자료를 확인할 수 있었던 점에서 의의가 있다.

작업균형 평가도구들에 대한 결과해석을 보면 일반적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혹은 낮을수록 작업균형이 좋거나 나쁜 것으로 판단한다. 이는 개인마다 작업에 참여하는

양상, 특성과 주관적인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작업균형이 좋고 나쁨에 대한 명확한 기준점을 제시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임상적 가이드라인을 위해서는 개인의 작업균형 점수가 보편적인 사람들의 범위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표준화 값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20대 이상의 정상 일반인을 대상으로만 진행하였으며,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의 특성을 고려한 분석이 이뤄지지 않았다. 향후에는 아동 및 청소년 연령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으며, 작업불균형이 있는 특정 인구집단과의 관별타당도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연령 및 성별을 고려한 작업균형 점수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이다.

V. 결론

본 연구에서 한국형 작업균형 평가(OBA)의 세 가지 영역과 작업균형 설문지(OBQ11) 총점 간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동시타당도를 검증하였다($p < .01$). 세부적으로 시간사용 및 작업빈도 영역에서는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작업특성 영역의 하위요인(중요도, 목표성취, 즐거움, 건강)에서는 대부분 높은 상관관계로 분석되었다. 향후에는 다양한 인구학적 특성을 가진 대상자들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으며, 임상에서 작업균형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는 표준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ACKNOWLEDGMENTS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 grant funded by the Korea government(MSIT).(No. 2017R1C1B5018346)

REFERENCES

Backman, C. L. (2004). Occupational balance: Exploring the relationships among daily occupations and their influence on well-being. *Canadi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71(4), 202-209.

Bejerholm, U. (2010). Occupational balance in people with schizophrenia. *Occupational Therapy in Mental Health*, 26(1), 1-17.

Christiansen, C. H. (1996). Three perspectives on balance in occupation. In R. Zemke & F. Clark (Eds.), *Occupational science: The evolving discipline* (pp. 431-451). Philadelphia: F. A. Davis.

Dür, M., Steiner, G., Fialka-Moser, V., Kautzky-Willer, A., Dejaco, C., Proding, B., et al. (2014). Development of a new occupational balance-questionnaire: incorporating the perspectives of patients and healthy people in the design of a self-reported occupational balance outcome instrument. *Health and Quality of Life Outcomes*, 12(1), 45.

Eakman, A. M. (2015). The meaningful activity wants and needs assessment: A perspective on life balance. *Journal of Occupational Science*, 22(2), 210-227.

Eklund, M., & Leufstadius, C. (2007). Relationships between occupational factors and health and well-being in individuals with persistent mental illness living in the community. *Canadi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74(4), 303-313.

Eklund, M., Orban, K., Argentzell, E., Bejerholm, U., Tjömstrand, C., Erlandsson, L. K., et al. (2017). The linkage between patterns of daily occupations and occupational balance: Applications within occupational science and occupational therapy practice. *Scandinavi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24(1), 41-56.

Günel, A., Pekçetin, S., Demirtürk, F., Şenol, H., Håkansson, C., & Wagman, P. (2019).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Turkish Occupational Balance Questionnaire (OBQ11-T). *Scandinavi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1-7.

Håkansson, C., Wagman, P., & Hagell, P. (2019). Construct validity of a revised version of the occupational balance questionnaire. *Scandinavi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14, 1-9.

Hickey, T. (1980). *Health and aging*. Thomson Brooks/Cole.

- Hong, S. Y., & Hong, D. G. (2019). Development of Korean occupational balance assessment(K-OBA) tool.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Community Based Occupational Therapy, 9*(2), 43-58.
- Khine, M. S. (2020). *Objective Measurement in Psychometric Analysis. In Rasch Measurement* (pp. 3-7). Springer, Singapore.
- Krupa, T., McLean, H., Eastabrook, S., Bonham, A., & Baksh, L. (2003). Daily time use as a measure of community adjustment for persons served by assertive community treatment teams. *Americ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57*(5), 558-565.
- Lariviere, N., & Levasseur, M. (2016). Translation and validation of the life balance inventory: An occupational therapy questionnaire. *Canadi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83*(2), 103-114.
- Matuska, K. (2012). Validity evidence of a model and measure of life balance. *OTJR: Occupation, Participation and Health, 32*(1), 229-237.
- Matuska, K. M., & Christiansen, C. H. (2008). A proposed model of lifestyle balance. *Journal of Occupational Science, 15*(1), 9-19.
- Park, S. M., & Park, J. H. (2019). A study on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Korean version of a life balance inventory(K-LBI).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27*(1), 15-26.
- Portney, L. G. (2020). *Foundations of clinical research: Applications to evidence-based practice*. FA Davis.
- Seong, T. J. (2011). *Fundamental statistics-understand and application* (6 Ed.). Seoul: Hakjisa.
- Uhrmann, L., Hovengen, I., Wagman, P., Håkansson, C., & Bonsaksen, T. (2019). The Norwegian Occupational Balance Questionnaire (OBQ11-N)-Development and pilot study. *Scandinavi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26*(7), 546-551.
- Wagman, P., & Håkansson, C. (2014). Exploring occupational balance in adults in Sweden. *Scandinavi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21*(6), 415-420.
- Wagman, P., & Håkansson, C. (2014). Introducing the occupational balance questionnaire (OBQ). *Scandinavi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21*(3), 227-231.
- Wagman, P., Håkansson, C., & Björklund, A. (2012). Occupational balance as used in occupational therapy: A concept analysis. *Scandinavi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19*(4), 322-327.
- Wagman, P., Lindmark, U., Rolander, B., Wählin, C., & Håkansson, C. (2017). Occupational balance in health professionals in Sweden. *Scandinavi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24*(1), 18-23.
- Wilcock A. (2006). *An occupational perspective of health* (2nd ed.). Thorofare, NJ: Slack.
-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1).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ICF*. Geneva, Switzerland: World Health Organization.

Abstract

The Concurrent Validity of the Korean Occupational Balance Assessment(OBA) Tool

Hong, So-Young*, Ph.D., O.T., Hong, Deok-Gi**, Ph.D., O.T.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Kosin university/professor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Wonkwang university, Institution of Health Improvement/professor

Objective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stablish the concurrent validity of the Korean Occupational Balance Assessment(OBA) tool.

Methods : This study was conducted on 1016 people from October 1 to October 25, 2019. Data collection was performed using OBA and Occupational Balance Questionnaire11(OBQ11). The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 correlation.

Results : There was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the scores of the three areas of OBA and the total score of OBQ11($p < .01$). All three areas were analyzed with positive correlations. The time use area ($r = .554$) and occupation frequency area ($r = .574$) were found to be correlated. Most of the sub-factors in the occupation characteristics area (importance $r = .582$, goal achievement $r = .633$, enjoyment $r = .649$, health $r = .650$) were analyzed with high correlation.

Conclusion : OBA has proven to be a valid and reliable assessment tool for measuring occupational balance. Further research needs to provide guideline on occupational balance for usefulness in clinical area.

Key words : Concurrent Validity, Occupational Balance Assessment, Occupational Balance